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내게 닥치는 일은 모두 마음공부 재료

☞ 17면에서 계속

제도가 되고 그 중생들이 제도가 되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사업도 하고 그러듯이 입자가 원자로, 원자가 분자로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되고 이 내 속의 중생들이 전부 보살로 화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벽도 없고 보꾹도 없이 어디든 다 천백억 화신으로 응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해서 체가 없는 마음으로 벗어난다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행하게 되니 이 세상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내 아픔 아님이 없어서 그냥 삼계를 통틀어 정신계의 어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수화풍을 인연삼아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모든 무정물 유정물이 나오고 인간은 맨 나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벗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막다른 골목이 된다면 어찌 되겠느냐. 우리가 이대로 쳇바퀴 돌듯이 고통속을 헤매고 돌아서 쓰겠느냐.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난다면 내 속의, 그 수효를 말할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다 제도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바깥 중생까지도 구제될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는 누굴 위해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사찰에 와서 여럿이 일을 하다보면 귀찮은 일, 속상한 일, 고달픈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하나 할게 아닙니다. 그것을 공부재료로 삼아서, 참 오고가는 인연속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자기가 자기 소를 타고 피리불고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는 입산해서 몇십년씩 공부를 해도 어렵다는 이 공부를, 살림도 하고 가족들과 사랑도 나누면서 하시라는 데 말입니다.

이 마음이 발전되어야만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발전됩니다. 우리가 고삐를 쥐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강렬하게, 한마음으로 남들이 안하는 것을 앞장서서 해보세요. 그게 빛이 있는 일이지 남의 꽁무니만 따르다가는 뭔 일이 생기면 제대로 대치하질 못할 겁니다.

마음이 발전을 해야 눈도 어둡지 않고 귀도 어둡지 않고…, 그래야 망하는 일도 없지요. 그땐 수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공부허서 가정적으로 뭐 할 게 있겠느냐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낭패스런 일이 올 때 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량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이게 마음으로 퍼뜩 합일이 되어 옳다는 생각이 들때 재깍 대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전세계가 평등하게 돌아가려면 정신계가 발전해서 그렇게 대치하는 일이 필요하다구요. 높은 것은 조금 내리고 얕은 것은 조금 올리고 모두가 서로 의논해서 평등한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한발 더 내디뎌서 정신을 계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남도 이끌어 주는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보시보다도, 어떠한 무주상 보시보다도 더 큰 보시입니다. 아무쪼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꼭 불교를 믿어야 하는지요

문 스님, 살아가기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종교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집안 어른께 인사를 드리려 갔다가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펜을 들었습니다.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꼭 불교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답 아시다시피 전세계로 볼 때 갖가지 이름의 종교가 있습니다. 별의별 내용의 종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어떤 종교를 따라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그 전부터 생각해온 것이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어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신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하고 또는 창조력을 기르고 진화 발전하는 도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실상의 근원을 알고 그것이 이 세상살이 돌아가는 그 속에 진리로써, 생활자체로써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도리를 이름붙여 종교라고 했으니 생활 자체를 떠나서는 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못하게 하는게 너무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교는 군대에 가선 안된다고 하고 어떤 종교는 또 가정생활보다 자기들이 하라는 일이 더 우선이라 하고….

전에 들은 얘기지만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무슨 물건을 팔러 다녀야 한다면서 어린애를 업고 기저귀 가방을 든 채로 빨래비누를 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정살림도 내 팽개치고 무슨 교화사업을 한다면서 돌아다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다 파괴되고 말았지요.

내가 있고서 가정이 있고 내 사회가 있고 내 국가가 있듯이 내가 없고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것은 모두에게 행복이 있고 다들 자유스럽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뒷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없는 것은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차원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혜로와지고 지혜로움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발전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종교가 다 뭡니까?

오늘에 마음이 발전을 해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손색없이 돌아가는 역량을 기르라는 게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무시하고 생활이 파괴되는 그런 것은 아예 종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려면 가령 사랑하라 하는 것도 말로만 사랑하는게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잘못 배우고 잘못 실천해서 그만 아이도 병으로 잃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화병이 나서 죽고 말았으니 오죽이나 처참한 일이었겠습니까? 뭘 믿는다는 게 그래서야 될 말인가요.

네 몸속의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속에 든 업식들을 다 지혜롭게 융화시키고 다스리면 그대로 천백억 화신이 되고 보신이 되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는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정신을 파괴시킨다면 말이 안되지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바로 현실생활의 법입니다. 마음을 발전시켜서 현실로 다가오는 곤욕스러운 일들을 녹이고 바꿀 수 있게 그런 도리를 배워가면서 참 감응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런다면 그게 바로 가는 길이요 참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종교라는 이름보다도 그 가르침을 보고 따를만 한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뜻과 말과 행이 손색없이 일치가 되어야 따를만한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다 하기 이전에 따를만 한 가를 보고 따를만 하면 그때에 비로소 따르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고기 덩어리인 이 모습을, 형상을 믿으라는게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잘 살펴듣고 보면 믿으라는 말은 형상을 믿으라는게 아니라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근본 즉 영원한 근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지요. 눈 뜬 사람이 장님을 이끌어 주어야 그 장님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눈 뜬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찾아와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은 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말해줍니다. 공부재료! 그러니까 나에게 매달리려 하지 말고 그런걸 공부재료로 삼아서 차제에 고를 타파해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고를 모르면 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춥고 으시시할 때 따끈한 물에 들어가면 절로 '어!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를 때리고 견주러 오는 걸 알아야 방패막이를 할 수 있고 추운줄 알아야 따끈한 물도 알고 시원한 줄도 아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그걸 공부재료로 삼아서 막힌 것은 뚫고 맺힌 것은 푸는 도리를 일러주신 겁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이지 묘법이로구나 하는걸 느끼실 것입니다.

흔히들 불교를 여느 종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그 이름을 넘어서 생활 속의 영원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겠지만 살다보면 가다가 딱 막혀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모르니까, 안되는 도리를 모르니까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는 것도 옳고 오는 것도 옳고, 안되는 것도 법이고 되는 것도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 양면의 도리, 말하자면 밀물과 썰물을 다 알아야 뭐가 뭔지를 알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생활속에서 내 앞에 닥치는 일, 가정에 닥치는 일을 모르는 것이고 모르니까 공부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고 종교라는 이름에 그만 앞 뒤를 가리지 않고 하라는 대로 대상을 향해서 애원하고 빌고 그런다면 그런 종교는 가져서 뭣하겠습니까?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으면서 아무리 전화 벨이 올리기를 기다려본들 전화가 걸려 오겠습니까?

내집에 전화를 놓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된다는 생각마저도 놓아야 합니다. 잘났다고 여기든 못났다고 여기든 어쨌거나 새 물이 솟게 하는 것은 나의 근본입니다.

은을 주고도 못하고 금을 주고도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해도 바꿀수 없는 나의 근본 말입니다.

○ 물질적 현상이라는 것도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지꾸 구정물이 솟는다해도 마음을 바꾸면 구정물도 새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왜 고·집·멸·도 하셨겠습니까? 마음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에 이 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마음이 철두철미하고, 진실되고 그래야 하지요.

내 마음의 근본자리에서 약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지장도 나오고 관세음도 나오는데 믿고 따르지 못할 게 없겠지요.

그러니 이 법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법입니까?

또 자기에게 재료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야말로 재료가 충만해 있지, 게다가 광력 전자력 통신력이 두루 갖춰져 있지…, 얼마나 광대무변한 법인데요. 그리고 묘법이구요.

영혼이 존재합니까

문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합니다. 스님의 말씀 가운데는 '자기 자신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혼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답 영혼이다 전생이다 하고 이름붙이기 전에 자기가 마음 먹고 행동하고 말하고 한 것은 업식이 되어서 자기에게 되돌아 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요.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은 서로 통신이 되고 전부 주고 받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속에서 내가 지은 걸 내가 받는데 그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자동적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죽어도 옷만 벗는 것이지 자기가 지은 것은 그대로 자기한테 되닥쳐 오고 반영이 되니까 지옥이다 천당이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이나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찰나찰나에 주고 받고 하는 이 자리가 천당도 되고 지옥도 된다, 바로 천당자리도 이 자리고 지옥자리도 이 자리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실체가 고정되게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영혼이 있니 없니 하는데 만물만생에 어느 것도 고정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찰나찰나에 이것이 되었다 저것이 되었다 하니까 나라고 고정시킬 게 없습니다. 그래로 공인 것이지요.

죽어도 살아도 영원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 성품자리, 자성이라 불러도 좋고 참 자기라 불러도 좋고 불성이라 불러도 좋은데 그 근본 성품은 진짜 영원하지요.

그 근본을 말하자면 영혼의 근본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름입니다.

내가 주인공! 하는 것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만 말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정되게 말할 수 없으니까 빌 공자를 써서 주인공! 하는 겁니다.

열반이 뭡니까? 수억겁을 거쳐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 말하고 행동하면서 짓고 입력했던 업식을 죄다 녹였다는 건데 그래서 죽어서 열반이 아니라 살아서 열반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에서 영원히 벗어나 대자유를 맛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놓으면 입자가 원자로
원자가 분자로 발전 진화돼
내몸속 중생들이 보살로 화현"

"마음 발전시켜 현실의 고통을
녹이고 바꿀 수 있는 도리를
체험하고 가는 것이 바로 참선"

만물만생 어느것도 고정 시킬것 없어 '空'

"가정과 생활 무시하면 종교라 할 수 없어"

몸이 아파 공부가 안됩니다

문 열심히 마음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자꾸 몸이 아픕니다. 스님 말씀에 따라 질병도 공부의 재료이겠거니 하고 지내는데 그래도 공부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채찍을 바랍니다.

답 내게 닥쳐오는 일들은 모두 자기를 가르치는 채찍입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요.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 자꾸 자꾸 뜻을 떠보면서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좋은 걸 시키면 그것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놓고 나쁜 걸 시키면 '아,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한 생각 바르게 돌려서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근본인 주인공이 그래서 스승입니다. 때로는 친구도 됐다가 부처도 됐다가 조상도 되었다가…, 별의 별게 다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기가 양면을 다 놓는 가운데 마음을 잘내라, 한생각 바르게 하라 이겁니다.

늘 말하는데 이래도 믿음이고 저래도 믿음입니다. 이 묘법을 믿는 데서 놓고 무심이 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사량으로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結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6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